

『距京程里表』의 내용유형과 계통에 관한 연구

도도로키 히로시(轟博志)*

A Study on the Types of “Gogyeong-Jeongripyo” and Its Genealogy

Todoroki Hiroshi*

요약 : ‘산경표’와 나란히 조선후기 국토지리사상의 체계화와 대중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경정리표’는 지금까지 주 연구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거경정리표는 조선후기의 국토지리관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당시 도로교통체계상의 분석에도 중요한 연구소재이다. 본 논문은 수많은 사본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경정리표들을 ‘대로체계’와 ‘경유지명’에 착안하여, 내용면에서 유형분류를 시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각 유형 및 다른 지리지들을 비교하면서 그 계통성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면서 향후 거경정리표 연구의 초석이 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든 거경정리표는 산경표와 마찬가지로 신경준이 편찬한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를 저본으로 하면서도 필사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공되었으며, 그 변화과정의 차이에서 ‘여지고 변형형’, ‘여지고 직계형’, ‘도로고 혼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점, 거의 각 유형간의 내적인 상호작용만으로 계보가 형성되고 개항기까지 내려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거경정리표, 동국문헌비고, 산경표, 신경준, 대로체계

Abstract : As well as “Sangyeongpyo,” “Gogyeong-Jeongripyo,” table of national road transportation system is important to comprehend identity of national geography in Joseon era even if it had not been researched ye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vide type of these tables and find its genealogy through mainly analyzing the road network and land names.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Yeojigo,” topographical researches of Korea, edited by Shin Gyeong-Jun as a part of “Dongguk-Munheonbigo” official book in natural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published in 1770, might be identified as the origin for all copy of “Gogyeong-Jeongripyo.” Then “Gogyeong-Jeongripyo,” can be divided into at least three major types; almost direct descent of “Yeoji go” as ‘type1’, minor modification as ‘type2’, and hybrid edition(type3) with second type that quoted many land names as route information from “Dorogo,” another topography specialized for road transportation. Since “Dorogo” was also composed by Shin, after all, all genealogy of “Gogyeong-Jeongripyo” came from him.

Key Words : Gogyeong-Jeongripyo, Dongguk-Munheonbigo, Sangyeongpyo, Shin Gyeong-Jun, major road transportation system

이 논문은 2006/2007년도 日本科學研究費補助金特別研究促進費(課題番号: 18729004)에 의해 연구되었음.

* 副教授,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アジア太平洋学科(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sia Pacific Studies,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hstod@apu.ac.jp

1. 들어가며

『거경정리표(距京程里表)』는 산경표나 족보와 비슷한 계보표 형식으로 조선시대의 도로체계를 해설한 지리서이다. 산경표와 마찬가지로 저자가 누구인지 추정 단계를 벗어나지 않아 명확하지 않고, 여러 이본이나 그들의 필사본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거경정리표』라는 제목은 어느 고문헌의 고유명사라기보다 ‘조선시대의 전국 도로체계 안내표’를 의미하는 일반명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 『산경표』는 백두대간에 대한 관심 고조에 힘입어 그 내력이나 계통성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거경정리표』는 그 자체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성과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조선시대 옛길 연구는 역사학과 지리학에서 주도하고 왔는데, 역사학¹⁾에서는 주로 역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 지리학²⁾에서는 경관지리학이나 취락지리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옛길을 기록한 사료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머물고 있다.³⁾ 그것도 주로 고지도나 지리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거경정리표』는 주된 분석대상이 되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리지가 교통에 대한 사상이나 변천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당시 학자에 의한 역사지리학적 연구서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과 달리, 주로 실무적인 이용에 초점을 맞춘 전국 도로 안내서로서, 당시 사람들이 길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이용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이미 많은 연구성과가 있는 지리지나 고지도류를 이용한 당시 학자들의 도로인식 연구만큼이나 중요성을 띤 연구소재로 생각된다.

더구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여지편람』을 비롯해서 『거경정리표』는 『산경표』와 한 쌍으로 대칭성을 갖고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조선시대 당시 산줄기를 한반도의 자연지리적 뼈대로, 도로를 인문지리적 뼈대로서 공통된 맥락에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을 반영하고, 또 실용적으로도 산줄기와 도로체계를 알면 국토지리를 이해하고 여행을 떠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가 『산경표』를 통해 조선사람들의 국토 자연지리인식을 해석 연구한 것처럼, 『거경정리표』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국토 인문지리인식도 분석하여, 또 서로를 비교 고찰하는 작업이 조선사람들의 국토지리인식 전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산경표와 달리 연구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경정리표』의 내용 자체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이 논문에서는 『거경정리표』 연구의 첫 걸음으로서, 수많은 필사본들이나 이본들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내용상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 나아가 내용면에서 추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통성에 대한 가설까지 제시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 향후 『거경정리표』에 대한 발전적인 연구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필자가 한국 및 일본에서 수집한 『거경정리표』 중 원형을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누락된 페이지가 있는 것이나 마이크로필름 복사 등을 통한 중복 소장본, 동일판에 의해 인쇄되었다고 판단되는 목판 및 활자 인쇄본 등을 제외한 총 29종이다⁴⁾. 거기에다 『거경정리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도로체계 내용을 기술식으로 담아서 계통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고』,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대동지지 정리고』 등도 참조 대상으로 하였다. 간선도로인 대로와 모든 지선을 합하면 분석 모체로서는 너무 방대한 양이 되기에, 대로를 분석의 중심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선의 사례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연구는 이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우선 대상으로 삼은 거경정리표류에 대해, 이들에 적시된 대로 노선의 번호부여, 구간, 노선수 등에 착안, 분류해서 이를 ‘대분류’로 하였다. 다음에 대로 경로에 적시된 경유지명의 종류와 수에 착안하여, 이를 자료에 따라 나타난 현저한 차이점들에 의거해서 분류하여, 이를 ‘중분류’로 삼았다. 세번째로 필사자에 의한 오류나 보완으로 생각되는 글씨의 오기, 동음이체, 경유지의 누락 혹은 추가 등을 파악해서 ‘소분류’로 했는데, 이는 사례건수가 너무 방대하므로 대분류나 중분류에서 파악된 유형 경향을 보완설명하는 수준으로만 사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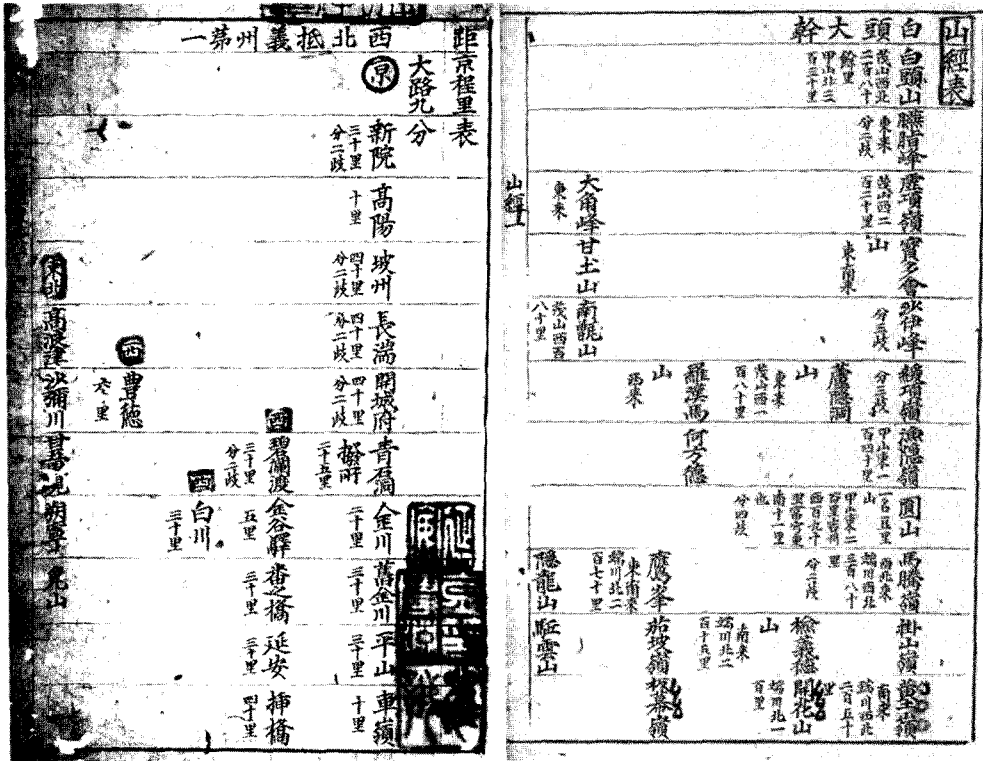


Figure 1. First tables of “Sangyeongpyo (right)” and “Gogyeong-jeongripyo” in “Haedong-doribo.”
海東道里譜(규장각 소장) 한 권에 같이 실린 「산경표」(오른쪽)와 「거경정리표」의 각 첫 쪽.

2. 『거경정리표』의 구성과 내력

뽑았다. 마지막으로 상기 작업으로 추출된 유형분류에 근거해서, 거경정리표류 서로간 및 다른 지리지 사이에서 확인되는 계통성에 대해 가설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거경정리표』는 표의 첫 쪽에 붙은 이름 즉 내제에 해당된다. 이와 별도로 책 표지에 쓰인 표제는 같은 『거경정리표』일 경우도 간혹 있는데 『도리표』, 『도리고』, 『정리표』, 『정리고』 등 여러 제목이 사용되어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표제를 각 책자의 고유명칭으로서 분리해서 취급한다. 내제 자체도 『거경정리표』가 아니라 『도리표』 등 다른 명칭일 때도 간혹 있는데, 논문 모두에서 설명한 이유로, 『거경정리표』로 통일해서 호칭하기로 한다.

1) 『거경정리표』의 구성

『거경정리표』의 표현방식은 Figure 1처럼, 산경표와 기본적으로 같다. 『산경표』는 족보에 흔히 사용되는 세로쓰기의 방안틀을 이용해서, 산줄기를 산이나 고개 등 경유하는 지점명을 한 칸씩 나열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맨 윗칸에 산줄기의 시점 즉 백두산을 표기하고 아랫칸으로 내림차순으로 이어지는 지명들을 열거하고 있다. 지명 옆에는 윗칸과의 실제 거리 및 거기서 갈라지는 산줄기의 유무와 그 숫자, 기타 특기사항 등이 같은 칸 안에 병기된다. 맨 처음에 백두대간이 족보의 장손 분가 계통처럼 세로 일직선으로 나열되고, 중간에서 갈라지는 산줄기들은 족보의 분가처럼

분기 지점 원편에서 시작되면서 나란히 표현된다. 백두산을 시조로 여기고 산줄기의 흐름을 씨족의 계통 흐름과 동일시하던 당시의 자연지리 인식체계의 반영임과 동시에, 국토의 자연지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합리적인 표현방식인 것이다.

『거경정리표』의 경우, 백두산 대신 京(한양)이 맨 윗 칸을 차지하고, 백두대간 대신 간선도로인 대로가 첫 줄 세로로 표현된다. 경유지로서 읍치나 역참, 나무, 고개 등 온갖 인문 및 자연적 지명들이 열거되며, 특히 경유하는 읍치들은 빠짐없이 게재된다. 역참이나 원점은 전부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실린다. 지명 옆에 앞 지점과의 거리 및 분기노선의 유무와 그 노선수를 병기하는 것은 산경표와 마찬가지로, 분기노선이 족보의 방계처럼 병행해서 나열되는 것도 같다. 산경표와 크게 다른 점은 『산경표』가 주 간선이 백두대간 단 하나 뿐인 반면에 『거경정리표』는 대로의 노선수만큼 여러 개 간선이 있고, 따라서 표도 간선 수만큼 따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과, 자료에 따라서는 우회로가 병기되어서 같은 구간의 경로가 꼭 한줄만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산경표』와는 구성상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아서, 같이 편집될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형제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서각 소장 『여지편람』에서는 『산경표』에는 乾권, 『정리표』에는 坤권 이라는 표제를 부여하고 두 권을 한 세트로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인 『기봉방역고』도 같은 구성이다. 규장각 소장 『해동도리보』(Figure 1)처럼 『산경표』와 『거경정리표』가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

첫 쪽 오른쪽 상단에는 ‘거경정리표’라고 내제를 달고, 또 게재하는 대로 총수를 명시한다.⁵⁾ 대부분은 각 대로 구분의 첫 쪽에 대로의 방향과 종착지, 번호를 명시하지만 일부 사본에서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는 필사시의 의도적인 생략 혹은 오류로 생각된다. 『산경표』에서 표시되는 산줄기와 같이 동일한 노선은 일직선으로 표시되고, 맨 하단까지 채우면 다음 쪽 맨 상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끔 이를 어기고 옆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1대로의 의주나 4대로의 좌수영 등에서 그런 사례가 확인되는데, 단 한 두칸을 위해 새로 줄이나 쪽을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집작된다. 한 줄은 보통 12칸으로 구성되고, 맨 위에 대로명칭 등 찾아보기용으로 작은 칸을 놓고⁶⁾, 두번째 칸은 전 쪽부터 이어지는 노선일 경우에만 전 쪽 마지막 칸에 실린 지명을 다시 게재하고 찾아보기 역할을 시킬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본문은 실제로는 셋째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분량은 사본에 따라 변동되는데, 대략 30쪽 안팎이어서 100쪽 정도 되는 『산경표』의 3분의 1 수준이다.

현존하는 『거경정리표』에는 뒤이어서 각 도내 읍치들 사이의 거리를 삼각표 형식으로 정리한 『道郡相距表』를 같이 수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통 『거경정리표』와 『도군상거표』를 합해서 『도리표』, 『정리표』 등의 표제를 단 한 권의 책자가 구성될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자료에 따라서는 『도군상거표』가 『거경정리표』보다 먼저 실리는 경우도 있고, 한편 『도군상거표』를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일정하지 않다.

조선광문회가 1912년 소장본을 활자판으로 만들어 복간한 『도리표』 머리말에는 『거경정리표』를 經으로 삼고, 『도군상거표』를 緯로 삼는다는 해설이 있다. 신경준의 『산수고』에서는 백두대간을 위시한 국토의 기둥이 될 산줄기를 ‘산경’으로, 각 지역의 시각으로 본 산줄기를 ‘산위’로 구분해서 소개하였다. 물줄기를 정리한 ‘수위’나 ‘수경’도 같은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과 위는 단순히 날줄과 씨줄이란 방향만 다르고 서로 대등한 구별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거시적 영역(경)이나 지역단위의 미시적 영역(위)이나를 분간하는 지리 스케일상 상하관계가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신경준이 처음으로 문헌상에서 밝혔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자연지리상의 經緯 개념이 도로체계라는 인문지리 영역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거경정리표』와 『도군상거표』이다. 『여지도』를 비롯한 당시 지리지에 그런 용어는 안 나오지만, 말하자면 도로체계를 道經(거시적)과 道緯(미시적)로 나누어 해석한 것이다. 여기서도 조선시대의 국토 자연지리인식과 인문지리 인식의 등질성이 재확인된다.

『산수고』에서는 산경과 산위는 동시에 수록되었지만, 후에 표 형식으로 발간되었을 때에는 산위는 누락

Table 1. “Gogyeong-jeongripyo” tables for analysis. 분석대상인 거경정리표류의 서지정보 일람.

No.	Cover Title	Caption Title	Holding Institution	Year	Notes
1	Jeongripyo 程里表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National library 朝60-6		
2	Yeoje-chwaryo 輿載撮要	Dongguk Palyeok-dori -pyo 東國八域道里表	Jangseogak	1883	Coupled with “Sangyeongpyo”
3	Yeoji-pyeollam 輿地便覽 坤(1/2)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Jangseogak		Coupled with “Sangyeongpyo” (乾)
4	Ingu 寅球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National library		
5	Jeongripyo 程里表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National library 朝60-66		
6	Doripyo 道里表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National library 승계古2700		
7	Haedong-doribo 海東道里譜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Kyujanggak 奎古4790.30		“Sangyeongpyo” in same book
8	Jeongripyo 程里表 單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Kyujanggak 奎7017		
9	Doripyo 道里表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1912	Edited by Gwangmunhoe
10	Jeongripyo 程里表	(No name)	National library 경고385132 J465		
11	Jeongripyo 程里表	Jeongripyo 程里表	Kyujanggak 奎6243		
12	Doripgo 道里考	Dorigo 道里攷	National library		
13	Jeongripyo 程里表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National library 朝60-77		
14	Gibong-bangyeokji 箕封方域誌 坤(1/2)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Kyujanggak 奎11426		Coupled with “Sangyeongpyo” (乾)
15	Doripyo 道里表	(No name)	National library 朝60-8		
16	Paldojido Ifurok 八道地圖 里?錄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Kyujanggak 奎古4709-14	Jeongjo period	
17	Doripyo 道里表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Korea Univ. Library 薪菴文庫 B10A98		
18	Gibongbangyeokgo 箕封方域考 坤(1/2)	Jeongripyo 程里表	Korea Univ. Library 六堂文庫 B10A1		Coupled with “Sangyeongpyo” (乾)
19	Doripyo 道里表	Gogyeong-doripyo 距京道里表	Korea Univ. Library 六堂文庫B10A5		mother of no.9
20	Imwon-gyeongjeji 林園經濟志	Palyeok-jeongripyo 八域程里表	Korea Univ. Library	1824	Editend by Seo Yugeo(徐有渠)
21	Daehan Sinjiji 大韓新地誌 坤(1/2)	Doripyo 道里表	Kyujanggak	1907	Coupled with “Sangyeongpyo” (乾).
22	Dongyeo-Giryak 東輿紀略 春(1/4)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Kyujanggak 奎6240		Edited by Jang Jiyeon
23	Haedong-juchado 海東舟車圖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Kyujanggak 奎12640		

Table 1. continued

No.	Cover Title	Caption Title	Holding Institution	Year	Notes
24	Salligo 山里考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Kyujanggak 奎3886		"Sangyeongpyo" in same book
25	Jeongri 程里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Seigado bunko (Japan)		
26	Nopyo 路表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Seigado bunko (Japan)		
27	Doripyo 道里表 全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Seigado bunko (Japan)		
28	Paldo-Jeongripyo 八道程里表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Korea Univ. Library 六堂文庫 B10A2		
29	Haedongjikbangpyo 海東職方表	Gogyeong-jeongripyo 距京程里表	Osaka Pref. Library (Japan)		

되어 산경만 수록되어 「산경표」가 될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산위까지 수록하면 너무 방대한 양이 되는데다, 산경과 중복될 내용도 많은 산위를 생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조선광문회본의 「산경표」도 그렇다. 한편 같은 조선광문회본 「도리표」에서는 '위'에 해당되는 「도군상거표」도 같이 수록하고 있으며, 그전에 발간되었던 필사본에서도 대부분 「도군상거표」가 동시수록되어 있다. 분량상으로는 「도군상거표」가 훨씬 많고, 일본 정가당문고 소장 정리표를 예로 들면 「거경정리표」는 33쪽, 「도군상거표」는 97쪽으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그 자체가 100쪽을 넘는 상경표와 분량상으로도 대칭을 유지하기 위해, 「거경정리표」와 「도군상거표」를 같이 수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여지편람」이나 「기봉방역고」처럼 산경표와 정리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을 경우 보기는 대칭을 이루었지만, 내용상으로는 한쪽은 '경'만 실리고, 한쪽은 '경위' 다 실린다는 불균형을 내포하게 되었다.

한편 「해동도리보」처럼 「산경표」와 「거경정리표」가 한 권으로 묶인 책에서는 「도군상거표」가 생략될 경우도 있으며, 일부 필사본들에는 「산경표」가 없어도 「도군상거표」가 같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거경정리표」 없이 「도군상거표」만 독립해서 전해진 예는 거의 없으니,⁷⁾ 도로체계의 경우도 산수와 마찬가지로

지로 위보다 경이 중요성에서 우위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경정리표」는 조선시대에 발간된 수많은 지리지 중에서도 책상에서 보는 연구용이나 進講용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점, 또 「산경표」와 한 쌍이 되어 국토지리를 자연 인문 양면에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특성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실용적 성격은 여러 종류의 필사본들이 전해져 있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필자가 수집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거경정리표류의 보관장소 현황은 Table 1과 같다.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다음에 장서각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육당문고 및 신암문고)에 많다. 해외에서는 일본 미쓰비시 靜嘉堂문고를 비롯하여 한국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 사본들이 산재한다. 연구대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문경시 옛길박물관에도 지역주민에게서 기증받은 「도리표」가 전시되어 있다. 아마도 그러한 개인소장본이나 지역의 박물관 및 자료관에서 소장된 책들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2) 『거경정리표』의 내력

『거경정리표』가 언제 누구 손으로 처음 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광문회본 「도리표」에는 ‘撰者未考’라고 주기하면서 ‘여지고에 실린 도리편을 經으로 삼았다’고도 하였다. 이는 『거경정리표』가 여암 신경준이 엮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⁸⁾ 중 도리조를 저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언급하듯 『거경정리표』 중에서 여지고 도리조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없으므로, 신경준 본인 혹은 다른 찬자 손에 의해, 여지고 도리조 내용에 일정한 내용변경을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양자는 계통적 연관성은 인정되어도 담은 내용이나 표현방식에서 보면 다른 책으로 분류된다. 특히 서술식을 계보표 방식으로 변환시킨 것과 대로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한편 같은 노선의 경우 지명수나 그 한자표기 등은 동일한 것이 많아서 대부분의 『거경정리표』가 여지고를 저본으로 하고 있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거경정리표』의 제작자가 신경준 본인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필자를 특정할 결정적인 사료가 없으며, 또 『여지고』를 참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저본으로 작표하는 일은 굳이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Yang(1992, 142 각주)이 『산경표』가 신경준의 일련의 저작을 참고하면서도 신경준 본인의 찬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⁹⁾

고산자 김정호는 『대동지지』 書目조에서 열거한 참고문헌 일람에 『정리표』를 포함시키면서 이것이 李崑秀의 편이라고 밝혀 두었다. 『대동지지』 중 도로체계 등을 정리한 정리고 편찬에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壽齋 이곤수는 1762년부터 1788년까지 살았던 유학자이며, 규장각 待敎를 지내는 동안 많은 논저를 남겼다. 현존하는 『거경정리표』가 포함된 고서 중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없으니 그가 정리표를 쓴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리지 서지정보에 능통했을 김정호가 저서에서 신경준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이곤수를 지목한 점, 그가 규장각 도서를 접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점과 그 시기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여지고를 저본

으로, 계보 형식으로 개량하여 『거경정리표』를 처음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지고가 편찬된 것이 1770년이었고, 이곤수가 규장각에 재직하는 것은 1782년부터 84년 사이이다. 더구나 현존이 확인된 『거경정리표』들은 모두 이곤수가 함경도에서 객사한 1788년보다 훨씬 뒤인 1796년에 완공된 수원화성이 경로로 실려 있어서, 그의 존명시기 혹은 그 전에 쓰인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김정호가 참고한 이곤수의 친필은 수원화성이 당연히 없을 터이니, 현존본들은 전해지지 않은 이곤수본보다 후에 나온 것이 된다.

또 洪奭周는 자전에서, 자신이 『示我周行集』 등 규장각 소장 중국 지리지를 참고하여, 『동국문헌비고』를 다시 정리해 족보식의 『東國八道程塗圖』를 만들었다고 적어 두었다. 1774년생인 홍석주는 이곤수보다 활동시기가 내려가는데, 규장각에 출입하던 공통점으로 보아 정조대의 규장각이 『거경정리표』의 요람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또 Bae(1999)의 지적처럼 영조대부터 정조대에 걸쳐 정부차원으로 도로에 대한 인식체계가 적극적으로 수립되는데, 이는 상업의 발달과 이에 따른 도로 개척과 이용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려된다.

이후 『거경정리표』는 여러 사람의 손으로 필사 및 개량되어, 최종적으로 1912년 발간의 조선광문회본으로 그 맥이 끊어지게 된다.

3. 『거경정리표』의 유형분류

1) 대로체계에 의한 분류(대분류)

조선시대에는 간선도로를 대로라고 하였다. 역로의 규격상 가장 규모가 큰 역이 입지한 구역 역시 대로라고 불려서 혼동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역 규격에 관계없이 국토의 기간이 되는 노선을 뜻한 말이다. 중앙집권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로 체계는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방사상 노선을 형성하였다. 노선의 종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접 국가와의 접경지이거나,

각 도의 해안가에 위치하는 국방상 요충지에 설정되어서,¹⁰⁾ 대로의 군사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현재의 국도처럼 국가에서 명확하게 도로의 노선과 구간을 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료에 따라 노선수나 경로, 구간

이 부분적인 공통점은 인정되면서도 Table 2처럼 기록마다 제각각이고, 그것도 시간축에 따라 계속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등의 경향성도 없기 때문이다. 조정에서 육상교통로 관리는 역참이라는 점의 집합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도로라는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Table 2. Type of “Gogyeong-jeongripyo” and topography by the number of road and their names.
대로의 노선수와 노선명에 따른 「거경정리표」와 주요 지리지의유형분류.

No.	Dorogo	Dongguk Munheonbigyo Yeojigo	Daedongiji	Dongyeo-Giryak (text type)	Daehan sinjiji (1907) Gogyeong-	Jeongripyo (others)
1	Uiju 의주	Uiju 의주	Uiju 의주	Uiju 의주	Uiju 의주	Uiju 의주
2	Gyeongheung Seosura 경흥 서수라	Gyeongheung Seosura 경흥 서수라	Gyeongheung 경흥	Gyeongheung 경흥	Gyeongheung Seosura 경흥 서수라	Gyeongheung Seosura 경흥 서수라
3	Pyeonghae 평해	Pyeonghae 평해	Pyeonghae 평해	Pyeonghae 평해	Pyeonghae 평해	Pyeonghae 평해
4	Dongrae 동래	Busan 부산	Dongrae 동래	Dongrae 동래	Busan 부산	Busan 부산
5	Jeju 제주	Tongyeong 통영	Bonghwa 봉화	Jeonju Jinju 제주 전주	Goseong 고성	Tongyeong 통영
6	Ganghwa 강화	Tongyeong bypass 통영일로	Ganghwa 강화	Jeonju 전주		Tongyeong bypass, Jeju and Chungcheong Navy Command Post 통영별로, 제주, 충청수영
7		Jeju 제주	Suwon bypass 수원별대로		Jeju 제주	Jeju 제주
8		Chungcheong Navy Command Post 충청수영	Haenam 해남		Hongju 홍주	Chungcheong Navy Command Post 충청수영
9		Ganghwa 강화	Chungcheong Navy Command Post 충청수영		Ganghwa 강화	Ganghwa 강화
10			Tongyeong bypass 통영별로			

었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대로체계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지식, 의도, 입장, 연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거경정리표』 역시 일정한 경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노선명은 보통 종착지 혹은 종착지에 가까운 중요지점 이름을 따며, '서북 저(抵)의주 제일' 처럼 노선의 방향과 번호도 같이 표시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석대상인 거경정리표 29종 중 『대한신지』를 제외하고는 노선명에 매겨진 번호는 제1부터 제7까지 7개 노선이다. 다만 『거경정리표』의 첫 쪽에는 '대로분구(大路分九)'라는 주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6로가 중간 소사에서 충청수영으로 가는 대로가 갈라지고, 삼례역에서 제주로 가는 대로가 다시 갈라지는 등 세 갈래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연유된다. 제주로나 충청수영로는 독립된 대로이면서 서울 쪽 일부 구간을 제6로와 공유하기 때문에 제6로의 표에 포함시켜서 마치 일개 분기선처럼 표시하고 있다. 노선명 표기는 대부분의 『거경정리표』에서 '南抵統營別路第六 南抵濟州西南抵忠清水營 同見'라고 분기되는 대로를 동일한 격으로 취급하고 있다.¹²⁾ 결과적으로 대로 수는 9개인데도 표 항목 및 노선명에 부여될 번호는 제7로까지라는 약간 복잡한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표의 구성을 조금이라도 간편하게 만들려는 실용적 측면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지고』나 『대동지지』 등에서는 중간에서 분기하는 대로이더라도 독립된 번호와 항목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3개 대로를 모아서 표시한 『거경정리표』의 6대로는 여지고에서는 구간은 같으면서도 통영일로 제6, 제주로 제7, 충청수영로 제8 등 독립해서 표기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지고의 내용을 『거경정리표』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들 대로가 6대로로 통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른 대로의 노선선정을 보면 제1로(의주로) 제2로(경흥 서수라로), 제3로(평해로), 제4로(부산로) 등 4개 대로는 『여지고』와 동일하게 게재되어 있다.¹³⁾ 이는 『거경정리표』뿐만 아니라 다른 지리지들도 마찬가지이다. 강화로도 다른 대로의 영향을 받아서 번호는 변동되지만 『동여기략』 도리조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구간으로 실려 있다. 다음 절에서 지적하듯 경유지

명도 거의 비슷해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단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제5로에 관한 부분이다. 여지고에서는 통영로가 제5로인데, 대부분의 『거경정리표』에서는 통영로 대신 태백산로가 제5로이다. 여기에 나오는 통영로는 『거경정리표』에도 나오는 통영별로와는 출발지와 목적지는 같아도 경유지는 거의 겹치지 않는 노선이다. 통영로가 호남 삼례역까지 제주로와 길을 같이 쓰다가 전주 남원 함양 진주 등지를 거쳐 통영을 향하는 반면, 통영로는 영남 유곡역까지 부산로와 같은 경로를 가다가 상주, 성주, 함안을 거쳐 통영을 향하는 길이다.

'별로(別路)'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통영로가 원래부터 있었던 대로이고, 통영별로는 후에 만들어진 우회로로 추정된다. 『여지고』 단계에서는 양자는 각각 통영로 및 통영일로(一路)로 표기되어 나란히 대로 취급을 받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여지고의 편자인 신경준이 집필한 『도로고』에서는 양쪽 다 대로가 아닌 분기선으로서 역시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다.¹⁴⁾

하지만 『거경정리표』나 1860년에 만들어진 『대동지지』 정리고에서는 통영로는 부산로(동래로)의 한 지선으로 전락되고, 통영별로가 통영으로 나가는 유일한 대로로 남게 되었다. 단 '통영로' 명칭을 승계하지는 않았고, 통영별로라는 특수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영조시대 이전 어느 시기까지는 통영로가 간선이었고, 『동국문헌비고』가 간행된 영조 때는 통영로와 통영별로의 간선기능을 분담하여, 영조 이후는 통영별로로 기능이 전이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Choi(1990, 154-160)는 조선후기 상업발달 등으로 인하여 남한의 교통축이 서쪽으로 전이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과도 부합하는 사실이다. 이후 통영별로는 제주도와 노선의 절반이상을 공유하면서 거경정리표에서는 제주로를 분기선으로 밀어내고 제6로의 필두에 서게 되었다.

거경정리표에서 새로 나타난 태백산로는 기타 대로들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다른 대로들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 최원점에 있는 접경지나 군사요충지, 혹은 지역의 최원점에 있는 읍치나 군사시설을 종점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태백산로는 그러한 조건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태백산로는 한양에서 충주까지는 부산로와 병행하는데, 부산로가 용인, 죽산을 지나는 반면에 광주, 이천 등지를 통과한다. 영남을 오가는 사람들은 부산로의 대체도로처럼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여지고에서는 부산로의 一路, 즉 우회로로 소개되고 있는 경로이다.

『거경정리표』에서는 이 길을 독립된 대로로 격상시킨 다음 예로부터 존재하던 죽령 영로와 연결시켜 태백산까지 연장하였다. 그러한 대로를 일부러 만든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지만, 『도로고』나 『여지고』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조대 이후에 생겨난 일이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태백산에서 다른 대로의 종점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면 각화사 뒷산에 있던 史庫만이 해당될 것이다.¹⁵⁾ 영조 이후 이른 시기에 태백산 사고 혹은 그 일대가 통영로를 대체해서 한양에서 직행하는 대로를 지정해야 할 만큼 태백산사고의 중요성이 증가한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¹⁶⁾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각화사나 사고 자체 역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거경정리표』의 기본적 구성은 제5로가 통영로에서 태백산로로, 시대변화를 반영해서 변경된 것 외에는 『여지고』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¹⁷⁾ 단 한 가지, 『대한신지지』에 수록된 『도리표』는 또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로의 수는 9개, 노선번호도 제9로까지 있어서 『여지고』와 마찬가지로, 노선명에 나타난 행선지명에는 군사시설 대신 읍치명을 기재한 것이 늘어났다(Table 2). 그러나 제5로의 고성 은 통영의 소재지이며, 제5로는 진주로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제5로와 연결될 고성까지 이어진다. 제8로도 홍주로로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충청수영의 소재지이니, 결국 제2로의 서수라와 제4로의 부산 외에는 행선지를 군사시설로부터 인근 읍치로 변경했을 뿐, 나타나는 대로체계는 『여지고』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거경정리표』와 마찬가지로 여지고를 저본으로 한 것인데, 군사적 색깔이 희박해진 점과 제5로를 태백산로로 대체시키지 않고 통영로로 남겨둔 것 외에는 오히려 저본에 보다 가까운 변종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한신지지』의 발간이 구한말인 1907년이라는 점이다. 이미 『거경정리표』가 널리 확산

되어 있던 시점인데도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보다 여지고의 원 내용에 가까운 구성이 된 것은, 이 책이 다른 거경정리표류가 아니라 여지고를 직접 참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듬 해인 조경에서 1908년에는 『동국문헌비고』의 내용을 보완한 『증보문헌비고』가 간행되는데, 여기에 수록된 대로체계 역시 『여지고』와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수원읍의 위치도 화성이 아니라 구 수원 그대로서, 제6로에는 화성 자체 나오지 않는다. 결국 개항기에 와서 서로 모순된 내용의 세 종류의 『거경정리표』들이 유통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거경정리표』는 대로 노선체계로 볼 때, 제5로에 통영로가 포함된 유형과, 태백산로가 포함된 유형으로 크게 분류되며, 그것이 영조대 이후 조선 후기의 동시대에 공존되었다는 사실, 양쪽 여지고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현존하는 양으로 보면 후자가 훨씬 많고, 보편적이었다.

2) 경유지명에 의한 분류(중분류)

다음에 앞 절에서 알아본 대분류의 정확성을 높힐 목적과, 대로체계 분석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유형들을 찾아내기 위해, 『거경정리표』에 기재된 각 대로의 경유지명에 대해 각자의 차이점에 착안하여 분류해 본다.

대부분의 『거경정리표』에 나타나는 경유지명들은 다음 절에서 취급할 자세한 변형들을 무시하면, 대로는 물론이고 분기선도 포함해서 여지고의 내용과 흡사하다. 이것은 앞 절에서 분가 계통으로 분류된 『대한신지지』, 마저도 마찬가지로이다. 단 한가지만의 예외는 『여재촬요』에 수록된 『東國八域途里表』이다. 동국팔역도리표는 『거경정리표』와 같은 계보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수록된 대로는 9개이면서 통영별로와 제주로, 충청수영로가 제6로에 통합된 점, 제5로에 통영로가 아니라 태백산로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도 다른 일반 『거경정리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수록된 지명들을 보면 같은 계열로 포함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책머리에 있는 제1로만 보아도, Table 3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다른 『거경

Table 3. Differences among "Gogyeong Jeongripyo" and topographies in land names.
제1로(의주로)에 나타난 「거경정리표」의 주요 경유지명 차이.

Paldo Jeongripyo (Korea univ., no.28 in table 1)		Yeoje chwaryo (Oh Hwengmuk,1893)			Dongguk Munheonbigoo Yeojigo		Dorogo		
Gyeong	Unambalso	Geong	Hulsujeom	Mukhyeon	Gyeong	Unambalso	Geong	Hulsujeom	Mukhyeon
京	雲岩撥所	京	葱秀店	墨峴	京	雲岩撥所	京	葱秀店	墨峴
sinwon	Anju	Hongjaewon	Anseongbal	Anju	sinwon	Anju	Hongjaewon	Ansungbalcham	Anju
新院	安州	弘濟院	安城撥	安州	新院	安州	弘濟院	安城撥站	安州
Goyang	Gwangtong	Jeonseokchi	Sangcharyeong	Cheoncheon	Goyang	Gwangtong	Jeonseokchi	Sangcharyeong	Cheoncheon
高陽	won	磚石峙	上車嶺	gang	高陽	won	磚石峴	上車嶺	gang
Paju	Geomamjeom	Geomamjeom	Seohung	清川江	Paju	廣通院	Geomamjeom	Seoheungbu	清川江
坡州	Daejeonggang	黔巖店	瑞興	Jeokhyeon	坡州	Daejeonggang	黔巖店	瑞興府	Jeokhyeon
Jangdan	Gasan	Sinwon	Seosanbal	赤峴	Jangdan	大定江	Sinwon	Seosanbalch	赤峴
長湍	Gasan	新院	西山撥	Gwangtong	長湍	Gasan	新院	am	Gwangtong
Gaeseongbu	嘉山	Goyang	Geomsuyeok	won	Gaeseongbu	嘉山	Goyanggun	西山撥站	won
開城府	Hyoseomgry	高陽	釵水驛	廣通院	開城府	Hyoseomgry	高陽郡	Geomsuyeok	廣通院
Cheongseok	eong	Byeokjeyeok	Bongsan	Daejeonggang	Cheongseok	eong	Byeokjeyeok	釵水驛	Daejeonggang
洞	Jeongju	碧蹄驛	鳳山	大定江	洞	Jeongju	碧蹄驛	Bongsangun	大定江
靑石洞	Jeongju	Bunsuwon	Dongseonry	嘉山	靑石洞撥所	Jeongju	Bunsuwon	鳳山郡	Gasan
Geunchon	定州	分水院	eong	嘉山	Geunchon	定州	分水院	Dongseonry	嘉山
金川	Dangaryeong	Gwangtan	洞仙嶺	Hyoseongrye	金川	Dangaryeong	Gwangtan	eong	Hyoseongrye
Gugeumcheon	當峨嶺	廣灘	Sainam	ong	Gugeumche	當峨嶺	廣灘	洞仙嶺	ong
舊金川	Gwaksan	Paju	舍人巖	曉星嶺	Paju	Gwaksan	Sainam	Sainam	曉星嶺
Pyeongsan	郭山	坡州	Hwangju	Napcheongje	舊金川	郭山	坡州	舍人巖	Napcheongje
平山	Seoncheon	Imjin	黃州	ong	Pyeongsan	Seoncheon	Imjin	Hwangju	ong
Charyong	宣川	臨津	Guhyon	納清亭	平山	宣川	臨津	黃州	納清亭
車嶺	Dongrimsans	Dongpayeok	駒峴	Gujeongseon	Charyong	Dongrimsans	Dongpayeok	Guhyon	Gujeongseon
Geumgyoyeok	eong	東坡驛	Junghwa	gbal	車嶺	eong	東坡驛	駒峴	gbalcham
金郊驛	東林山城	Jangdan	中和	九鼎城撥	Geumgyoyeok	東林山城	Jangdanbu	Junghwabu	九鼎城撥站
Sangcharyeong	Cheolsan	長湍	Jidolbal	Wolnaeogyo	金郊驛	Cheolsan	長湍府	中和府	Wolnaeogyo
上車嶺	鐵山	Gyeonyangam	地突撥	月乃橋	Sangcharyeong	鐵山	Gyeonyangam	Jidolbalcham	月乃橋
Seoheung	Seorimsanse	見樣巖	Yeongjegyo	Jeongju	上車嶺	Seorimsanse	見樣巖	地突撥站	Jeongju
瑞興	ong	Panjokgyo	永濟橋	定州	Seoheung	ong	Panjokgyo	Yeongjegyo	定州
Geomsu	西林山城	板積橋	Daedonggang	Dangaryeong	瑞興	西林山城	板積橋	永濟橋	Dangaryeong
釵水	Yongcheon	Chwijekgyo	大同江	當峨嶺	Geomsu	Yongcheon	Chwijekgyo	Daedonggang	當峨嶺
Bongsan	龍川	吹笛橋	Pyeongyang	Gwaksan	釵水	龍川	吹笛橋	大同江	Gwaksangun
鳳山	Gwanjingang	Gaeseongbu	平壤	郭山	Bongsan	Gwanjingang	Gaeseongbu	Pyeongyangbu	郭山郡
Dongseonry	串津江	開城府	Gangdonggyo	Seoncheon	鳳山	串津江	開城府	平壤府	Seoncheonbu
eong	Uiju	Cheongseok	江東橋	宣川	Dongseonry	Uiju	Cheongseok	Gangdonggyo	宣川府
洞仙嶺	義州	dongbal	Busanbal	Dongrimsans	eong	義州	dongbalcham	江東橋	Dongrimsans
Sainam	(42)	靑石洞撥	釜山撥	eong	洞仙嶺	(42)	靑石洞撥站	Busanbaljeo	eong
舍人巖	Duseogu	Sunan	東林山城	Sainam	Duseogu	Sunan	m	東林山城	Sainam
Hwangju	順安	豆石隅	Cheolsan	Cheolsan	Hwangju	順安	釜山撥店	Cheolsanbu	Cheolsanbu
黃州	Gugeumcheon	Amjeokcheon	鐵山	Hwangju	Gugeumcheon	Sunangun	鐵山府	Seorimsanseong	Seorimsanseong
Gukyeong	Geumcheon	Nengjeongbal	西林山城	Gukyeong	gun	順安郡	Seorimsanseong	Seorimsanseong	Seorimsanseong
駒峴	金川	冷井撥	Yongcheon	駒峴	金川郡	Amjeokcheon	Amjeokcheon	Amjeokcheon	Amjeokcheon
Junghwa	Okkogae	Eopawon	龍川	Junghwa	Gugeumcheon	Amjeokcheon	Seorimsanseong	Seorimsanseong	Seorimsanseong
中和	Daedonggang	吾古介	於波院	Gwanjingang	舊金川	Naengjeongb	龍川府	龍川府	龍川府
大同江	Geumamhyeon	Sukcheon	串津江	串津江	Okkogae	alcham	Gwanjingang	Gwanjingang	Gwanjingang
Pyeongyang	金巖峴	肅川	Singwanbal	新串撥	大同江	Geomyangh	冷井撥站	串津江	串津江
平壤	Pyeongyang	平山	Jeonmunrye	ong	平壤	yeon	於波院	Sogwanbalc	ham
Sunan	Janghang	楓川院	ong	Jeonmunrye	平壤	金陽峴	Sukcheon	所串撥站	Jeonmunrye
順安	Unatgyo	獐項	箭門嶺	ong	Sunan	Pyeongyang	肅川府	Jeonmunrye	Jeonmunrye
Naengjeongb	Geungyoyeok	雲巖橋	Uiju	Naengjeongb	順安	sinhaengwon	肅川府	sinhaengwon	ong
also	金郊驛	Jangya	義州	Amnokgang	順安	Naengjeongb	新行院	箭門嶺	ong
冷井撥所	Sukcheon	長野	Amnokgang	鴨綠江	also	Jeonmunrye	Unambalcham	Uiju	Uiju
肅川					Sukcheon	鴨綠江	義州	Amnokgang	Amnokgang
				(76)	肅川		長野	鴨綠江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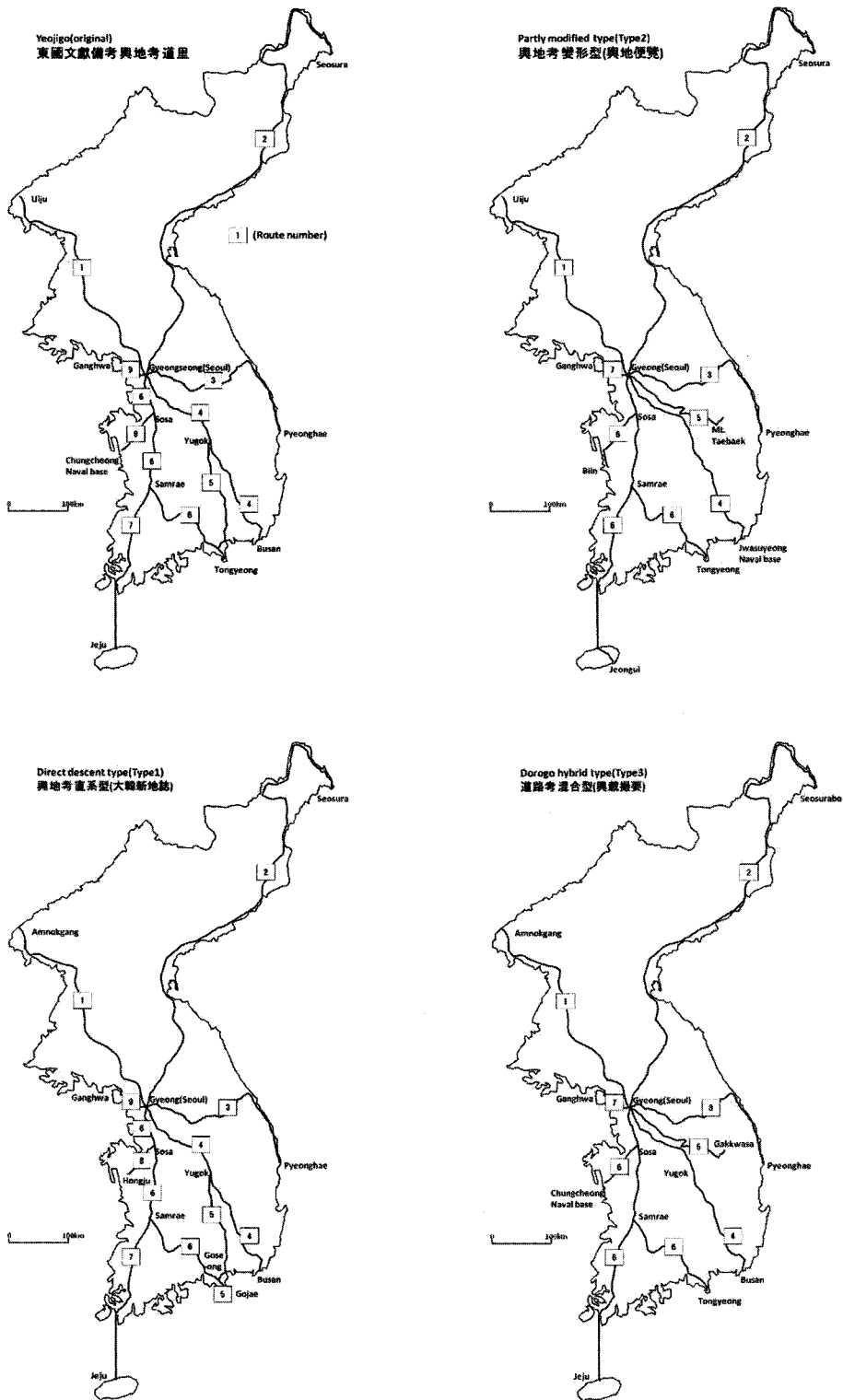


Figure 2. Difference between "Yeojigo" and each type of "Gogyeong-jeongripyo" by routes and number. 「東國文獻備考輿地考」와 「거경정리표」 각 유형에서 노선번호 및 구간의 차이점.

정리표』는 42개소 경유지를 기재하고 있는 반면에, 『동국팔도정리표』는 76개소로 두 배에 가까운 경유지를 수록하고 있다. 다른 『거경정리표』는 한양 다음의 경유지명은 30리 떨어진 현 고양시 덕양구인 신원이지만, 『동국팔도정리표』에서는 그 중간에 홍제원, 박석고개, 검암점(구파발) 등 거의 5리 내지 10리마다 자세히 경유지명을 적고 있다. 『거경정리표』는 경유하는 모든 읍치와, 경로선택의 실마리가 될 정도의 최소한의 역참이나 원점, 고개, 나루 등을 선별적으로 신고 있지만, 『동국팔도정리표』는 통과하는 거의 모든 역참과 대부분의 원점, 영로 등을 나열하고 있으며, 군사목적이나 공무수행 목적 외에도 일반인 여행에 편리한 정보들을 담았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국팔도정리표』에 나타나는 경유지명이나 그 순서가 Table 3처럼 『도로고』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다. 종점이 의주가 아니라 10리 더 가서 중국과의 국경인 압록강이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즉 『동국팔도정리표』는 대로체계는 『거경정리표』의 계열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내용면에서는 『거경정리표』나 『여지고』가 아니라 『도로고』를 참고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로고』의 내용을 『거경정리표』 틀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제1로뿐만 아니라 모든 대로와 대부분의 분기선에서도 확인되었다.

『여재촬요』는 한말에 오형묵이 국학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지리 교과서 용도로 엮은 것인데,¹⁸⁾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 스스로의 생각으로 양자의 장점을 접목시킨 형태를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발간시기는 개항기이기 때문에, 『도로고』에서는 구 수원읍 경유였던 삼남대령이 화성경유로 변경되는 등 미조정을 거치고 있다.

『동국팔도정리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로에서 분기할 길뿐만 아니라, ‘직로’¹⁹⁾라는 이름으로 병행하는 우회도로를 많이 실었던 점이다. 이것 역시 오형묵에 의한 독자적인 개량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동국팔도정리표』는 앞 절에서 밝힌 두 가지 유형들과도 다른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 개항기에는 내용이 서로 모순된 도합 3개 유형이 나란히 존재하였던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각각 즉 ‘여지고 변형형(도리표

형)’, ‘여지고 직계형(대한신지지형)’, ‘도로고 혼합형(여재촬요형)’으로 호칭하도록 한다(Figure 2).

참고로 『동여기략(규강각본)』의 도리조도 표 형식은 아니고 기술식이지만 제6로(강화로)가 빠진 것 외에는 『도로고』와 아주 가까운 체계와 경유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동여기략』의 같은 권 안에 묶여서 뒤이어 수록된 『거경정리표』는 ‘여지고 변형형’이어서, 다른 유형이자 모순된 내용을 가진 대로체계가 같은 책 안에 실려 있는 꼴이 되어 있다. 이런 편집을 한 편자의 의도는 알 수 없으며, 필적이 너무 달라서 편자나 소유자가 나중에 끼워 넣은 것일 수도 있다.²⁰⁾

3) 필사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에 의한 분류(소분류)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상기 3개 유형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지고 변형형’도 경유지명을 하나씩 보면 똑같은 것은 없다. 여기서는 그 중 유형분류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1) 지명 접미어의 차이

가장 눈에 띄고 사례도 많은 차이점이다. 같은 지명에 의거하면서 그 지명이 가진 지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접미어가 자료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문경새재로 알려진 제4로의 호서 영남 교계지점인 조령은 대부분 조령 단독으로 표기되지 않고, ‘烏嶺東華院’이라고 기재하여 문경측에 있는 원 이름을 병기하고 있다. 대부분 조령동화원을 한문음의 단어로 하고 있는데, 『기봉방역고(고려대 옥당문고본)』처럼 ‘동화원’ 부분을 주석 격으로 작은 글씨로 곁들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여지고도 ‘조령동화원’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받아 쓴 것으로 생각된다.²¹⁾ 한편 29개 분석대상 중 8개는 ‘조령’으로만 기재하였는데, 이는 필사 혹은 조판 과정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접미어 변화 사례로 많은 것은 고개를 말하는 嶺과 峴, 峙의 차이, 역과 참 그리고 원의 차이, 군사시설인 鎭과 堡의 차이 등이 있다. 사례에 따라 다른 한

자를 충당하는 경우, 역참, 원점 등 겹치기식으로 변화 되는 경우, 반대로 모두 누락되어서 지명만 남게 변화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제2로의 임동원참이나 제3로의 오원참 제6로의 천원참 등 ‘원참’이란 경유지명이 적지않게 나타나는 것은 조선시대 원터에 참이 설치된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같은 지명에 쓰이는 한자의 차이

이것도 대부분의 거경정리표에서 발견된다. 가장 많은 것은 동음이의어이다. 잘 알려진 예로서는 제4로의 대구가 大邱와 大丘로 서지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대구의 명칭이 丘 자에서 邱 자로 변경된 것은 1780년대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전에 발견된 『동국문헌비고』나 『도고로』에서는 당연히 大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경정리표』에도 丘 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보이며, 심지어 『대동지지』에서도 大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 그런 변경은 철저히 되지 않은 것 같다. 제3로의 평구역이나 구산역의 구 자도 邱로 한 자료와 丘로 한 자료 양쪽이 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변했다기보다 양쪽 같은 언덕을 뜻하는 한자여서, 필사자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는 호환성이 있는 글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외에도 제2로의 草原驛과 草院驛, 제3로의 橫溪驛과 洪溪驛, 제4로의 安富驛과 安保驛, 제6로의 銅雀津과 洞雀津 등 동음이지거나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바꾸어 쓴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제3로의 玉山灘과 玉山灘처럼 발음이 아니라 한자 끝에 유사점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제3로의 玉山灘과 王宿灘, 交柯驛과 交歇驛처럼 전혀 다른 한자를 맞춘 사례도 존재한다.

제2로의 利原과 利城, 제6로의 魯城과 尼城도 발음과 관계없이 한자가 바뀐 예이다. 노성은 원래 尼山이었다가 영조대인 1776년에 尼城으로, 정조대에 다시 魯城으로 음명을 고쳤다. 利原은 1800년에 利城으로 개칭되었다. 현존하는 거경정리표류는 모두 화성축성 이후의 것임이 분명하므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尼城이 표기되어 있는 자료는 정조대에 작성되었고, 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800년 이전 것으로 된다. 앞의 대구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조대 이후도 이전 표기가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완전히 신뢰

할 수는 없지만, 거경정리표의 전파가 정조대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짐작된다.

그 외에 약자 사용으로 인한 글씨 변화, 제2로의 隳下鎭과 甫乙下鎭, 제3로의 笏嶺과 葛嶺처럼 표음문자의 표기를 둘러싼 차이, 제1로의 웃고개(吾古介)와 衣峴처럼 한국어 지명에 기인하는 차이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들이 발생되는 것은 필사시의 오기나 의도적인 변경도 있을 수 있고, 해당지역에서 실제로 복수의 한자가 쓰이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만큼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거듭 배껴져 가면서 『거경정리표』가 널리 전파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3) 지명표기 차이에 의한 분류

이와 같은 표기상 차이점들도 한 개씩 분리해서 보면 아무런 계통성도 확인할 수 없지만, 복수를 같이 비교해 볼 때 어떤 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제3로를 사례로, 그러한 유형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제3로를 선택한 이유는 앞 항까지 언급한 표기상 차이점의 여러 유형들이 거의 모두 나타난다는 점과, 경유지 비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Todoroki, 2002).

제3로의 경유지명들을 ‘여지고 변형형’과 ‘직계형’은 『여지고』를, ‘도로고 혼합형’은 『도로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Table 4과 같다. 전자에서는 前陽峴이 陽자가 모두 일치하지 않고, 대부분의 『거경정리표』가 京으로 표기하는 한양을 『여지고』가 京城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모든 경유지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없다. 상기 2개소를 제외하고 차이가 없는 자료는 6개 뿐이다. 한양에서 종점 평해까지 35개 있는 경유지 중 가장 많은 도리고(12)가 13개이며, 10개 이상 차이가 나는 자료가 4개, 5개 이상이라면 총 13개가 된다.²²⁾

더 특징적인 것은 차이점이 많은 자료들 사이에서는 『여지고』와의 차이점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牛溪를 羽溪로, 交歇驛을 交柯驛으로, 洪溪驛을 橫溪驛으로, 方林驛을 芳林驛으로 고쳐 쓰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전술한 평구역이나 구산역도 모두 邱자를 사용한다. 이것은 ‘여지고 변형형’에 속하는 『거경정리표』 가운데서 조기에 갈라져서 독자적으로 필사가

거듭된 '아류'의 존재를 시사한다. 아류로 간주되는 『거경정리표』의 다른 대로들에 관한 경유지명 표기를 보아도,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1로의 개성부를 松都로 쓰거나, 제6로의 草浦橋가 누락되는 등 몇 가지 공통된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여지도 변형형』의 모든 미세 유형과 그 분화과정을 확정하려면 필사과정에 대한 해명과 언어학, 향토사학, 서지학 등과의 학제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단 시기적으로 이 유형의 종착점은 조선광문회본 『도리표』일 것이며, 그 직접적인 저본이 된 고려대 도서관 소장 『도리표』가 광문회본의 바로 전단계라는 것만은 확실할 것이다.²³⁾

4. 『거경정리표』 계통성에 대한 시론

1) 종조로서의 신경준

제3장에서 시도한 『거경정리표』의 유형분류는 여러 가지 지표와 요소가 작용되고 있어서, 약간 복잡한 틀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도출된 유형들을 정리하면 비교적 명쾌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 갈래의 유형들이 비슷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류와 비주류가 명백하게 구분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모두 여암 신경준이라는 하나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Park, 1996; Ko, 2003; Lee, 2003; Park, 2007 등) 신경준은 언어학, 법학, 의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 통달한 실학자였던 바,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 바로 역사지리학 분야였다. 그는 독자적으로 『사연고』, 『산수고』, 『도로고』 등의 국토지리에 관한 저술들을 완성시켜가면서, 조선에 원래 있었던 지리적 정체성들을 명확한 개념으로 승화시킨 업적을 가지고 있다. 백두대간에 상징되는 산수경 개념이나 대로체계 개념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런 능력을 평가받으면서 영조의 어명에 의하여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중 『여지도』 편집을 맡게 되었는

데, 이것이 신경준의 국토지리사상에 대한 집대성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지도 중 道里조에서 대로체계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山川조에 『산수고』 내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도리조 내용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도로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다만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리조에 수록된 도로 경유지명 수는 『도로고』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압축되었으며, 지명표기도 많이 간략화되어 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쪽수를 정할 수 있었던 개인작품인 『도로고』와 달리, 전체 분량을 무제한 늘릴 수 없는 관찬서지의 제약에서 오는 차이일 것이며, 이런 경향은 다른 條들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도로고』는 각 대로의 행선지가 군사요충지가 아니라 변방의 읍치로 되어 있고, 경유지점에도 장터 취락이나 주막촌 등 일반 상업취락이 많이 수록되는 등 민생용 성격도 짙은데(Ryu, 2005, 45-53) 비해, 『여지도』 도리조는 행선지를 읍치에서 주변의 군사시설로 바꾸고, 통영 충청수영 등 鎭營을 향한 대로를 3개 추가하는 등 군사목적으로 무게를 옮긴 것이 뚜렷하다. 이것은 『동국문헌비고』의 편찬 자체가 영조의 변방수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신경준은 그러한 조정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도로고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여지도 도리조를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도로고』와 『여지도』 도리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학자가 같은 시기에 주도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체계와 모순된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국토의 기둥이 될 대로와 그 분기선들을 통틀어서 고유 명칭과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체계의 정리방식이나 경유지명과 程里를 번갈아 적어가는 표기 방법 등은 동일하며, 이것이 이끈수가 처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경정리표』나 『대동지지』 등 후세의 도로체계 기록물들의 규범이 되었다.

2) 『거경정리표』의 계통

여기서는 제3장의 유형분류결과를 정리하면서, 각 유형 서로간의 연계성을 확인해서 계통성에 대한 분석

Table 4. Comparing land names between “Gogyeong-jeongripyo” and topographies which seemed to be its origin. 제3로(평해로)에서 유사 지리지를 기준으로 한 경유지명 표기의 변화.

Yeojigo	Gogyeong-jeongripyo except for Yeojechwaryo	Dorogo	Yeojechwaryo(no.2)
Gyeongseong 京城	Gyongs京師 (20), Gyeong京 (others)	Gyeong 京	Gyeong 京
Manguri 忘憂里	Mangurihyeon忘憂里峴(12), Manguri亡憂里(27)	Mangurihyeon 忘憂里峴	Mangurihyeon 忘憂里峴
Wangsantan 王山灘	Oksantan玉山灘(16), Wangsuktan王宿灘(12,23)	Wangsantan 王山灘	Wangsantan 王山灘
Pyeonggyeok 平丘驛	Pyeongwanyeok平山驛(16), Pyeonggyeok平邱驛 (5,10,11,12,13,17,21,22,29)	Pyeonggyeok 平丘驛	Pyeonggyeok 平丘驛
Bonganyeok 奉安驛		Bonganyeok 奉安驛	Bonganyeok 奉安驛
Gorangyeok 高浪驛		Gorangjin 高浪津	Gorangjin 高浪津
Wolgye 月溪		Isuduri 二水豆里	Isuduri 二水頭里
Yanggeun 楊根		Wolgye 月溪	Wolgye 月溪
Jipyeong 砥平		Deokgok 德谷	Deokgok 德谷
Jeonyanghyeon 前陽峴	Jeonyanghyeon前楊峴(1-20,22-29), Jeonyanghyeon前良峴(21)	Yanggeunhyeon 楊根縣	Yanggeun 楊根
Anchangyeok 安昌驛		Baekhyeon 百峴	Baekhyeon 百峴
Wonju 原州		Jipyeonghyeon 砥平縣	Jipyeong 砥平
Owoncham 梧院站		Jeonyanghyeon 前陽峴	Jeonyanghyeon 前陽峴
Anheungyeok 安興驛		Songchi 松峙	Songchi 松峙
Ungyoyeokchang 雲橋驛倉		Anchangyeok 安昌驛	Anchangyeok 安昌驛
Bangrimyeok 芳林驛	Ungyoyeok雲橋驛(11,13,20), Ungyochang 雲橋倉(5,17,21)	Wonju 原州	Wonju 原州
Cheongsindaecham 淸心臺站	Bangrimyeok芳林驛(12,14,16,18,22)	Siksongjeom 植松店	Siksongjeom 植松店
Jinboyeokcham 珍寶驛站	Cheongsindae淸心臺(5,9,11,17-23,26), Daehwayeok 大化驛 (12,13)	Odongwonyeok 梧桐院驛	Odongwonyeok 梧桐院驛
Honggyeok 洪溪驛	Jinboyeok珍寶驛(11,12,18-24,26), jinboyeok珍富驛(5,14,17)	Anheungyeok 安興驛	Anheungyeok 安興驛
Daegwallyeong 大關嶺	Hwenggyeok橫溪驛(5,12,17), Honggye洪溪(21)	Ungyoyeokchang 雲橋驛倉	Ungyoyeokchang 雲橋驛倉
Gusanyeok 丘山驛	Daegwanyeok大關驛(8,21,22)	Bangrimyeok 芳林驛	Bangrimyeok 芳林驛
Gangneung 江陵		Taehwayeokchang 大和驛倉	Taehwayeokchang 大和驛倉
Ugye 牛溪	Gusanyeok邱山驛(5,10,11,12,16,17,21,22,29), Gusanryeong邱山 嶺(21)	Cheongsimdae 淸心臺	Cheongsimdae 淸心臺
Pyeongneungyeok 平陵驛		Jinboyeok 珍寶驛	Jinboyeok 珍寶驛
Sancheok 三陟	Ugye羽溪(11,12,18,19,21,26)	Woljeonggaeom 月亭街店	Woljeonggaeom 月亭街店
Gyoheolyeok 交歇驛		Honggyeok 洪溪驛	Honggyeok 洪溪驛
Yonghwayeok 龍化驛		Daegwallyeongsang 大關嶺上	Daegwallyeong 大關嶺

Table 4. continued

Yeojigo	Gogyeong-jeongripyo except for Yeojechwaryo	Dorogo	Yeojechwaryo(no.2)
Owonchang 梧院倉	Gyogayek交柯驛(11,12,21,22)	Gusanyeok 丘山驛	Gusanyeok 丘山驛
Uljin 蔚珍	Yonghwa龍化(21)	Gangneungbu 江陵府	Gangneung 江陵
Susanyeok 守山驛	Owonyeok梧院驛(6,8,20,23), Ogwonyeok沃原驛(21), Ohwayeok梧化驛(22)	Ugye 牛溪	Ugye 牛溪
Deoksinyeok 德新驛		Pyeongneungyeok 平陵驛	Pyeongneungyeok 平陵驛
Mangyangjeong 望洋亭	Susanyeok守山驛	Samcheokbu 三陟府	Samcheok 三陟
Wolsongjin 越松鎭	Deoksinyeok德新驛	Gyoheolyeok 交歇驛	Gyoheolyeok 交歇驛
Dalsuyeok 達水驛		Yonghwayeok 龍化驛	Yonghwayeok 龍化驛
Pyeonghae 平海	Wolsongjeong越松亭(1,2)	Owonchang 梧院倉	Owonchang 梧院倉
	deleted(9,11,18,19,26), Dalsu達水(21)	Gallyeong 架嶺	Gallyeong 架嶺
	Pyeonghae平海	Uljinhyon 蔚珍縣	Uljin 蔚珍
		Susanyeok 守山驛	Susanyeok 守山驛
		Deoksinyeok 德新驛	Deoksinyeok 德新驛
		Mangyangjeong 望洋亭	Mangyangjeong 望洋亭
		Wolsongjin 越松鎭	Wolsongjin 越松鎭
		Dalsuyeok 達水驛	Dalsuyeok 達水驛
		Pyeonghaegun 平海郡	Pyeonghae 平海

(No. in brackets equals to no. in table 1.)

을 시도한다.

제3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석대상의 모든 『거경정리표』는 대로의 노선수와 행선지로 보아 『여지고』를 저본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거경정리표』는 대로의 수를 저본과 같은 9개로 하면서 제5로를 통영로 대신 태백산로로 넣는다는 근본적인 변경을 가하고 있다. 또 경로의 중복이 있는 저본의 제6,7,8대로를 하나로 묶어서 '제6로'로 하고, '大路分九' 체계를 유지하면서 표제상 제7로까지만 존재하는 복잡한 구성으로 하는 등의 공통된 변화가 있다. 이들은 저본과의 관계가 농후하면서 모든 필사본에 공통된 변형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를 본 논문에서는 '여지고 변

형형'으로 호칭하였다.

예외적으로 한말에 간행된 『대한신지지』는 『여지고』의 대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완전히 독립된 9개대로를 가지고, 제5로도 통영로에 부여하였다. 한 가지 자료밖에 없지만 저본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독립된 유형으로서 '여지고 직계형'으로 호칭하였다. 이상은 대로체계 차이에서 발견된 유형이었다.

다음에 경유지명을 분석하면, 역시 한말에 간행된 오흥묵의 『여재촬요 동국팔도도리표』는 '여지고 변형형'의 대로분구 7로제의 대로체계를 가지면서, 경유지명은 『여지고』가 아니라 『도로고』의 내용을 집목시킨 복합형 양상을 띠고 있어서, '도로고 혼합형'으로 꼽

혼합형'의 경우 여지고 변형형이라는 자신의 '아버지'와 도로고라는 '증조할아버지' 양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여지고 직계형'인 『대한신지지』도 도로체계나 내용은 '여지고'라는 '할아버지'에서 받았지만, 기술형식이나 '도리표'라는내제명은 '아버지(여지고 변형형)'에서 받고 있다. 이처럼 계통분할의 계기가 될 만한 서지적 상호간섭이 주로 자체 혈통 안에서만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다른 지리학자나 실학자 계통과의 간섭은 새로운 계통분할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거경정리표』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하겠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주제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거경정리표』에 대해, 대로의 체계와 경유지 명칭 등 내용면에 착안하여 유형분류와 그 계통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거경정리표』가 신경준 편인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도리조를 저본으로 삼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일부는 도리조의 저본인 신경준의 『도로고』의 직접적인 영향도 받았는데, 결국 모든 유형의 시조는 신경준에게 있었던 셈이다. 이들이 다시 필사 확산 과정에서 '여지고 직계형', '여지고 변형형', '도로고 혼합형' 등 세 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개중 '여지고 변형형'이 주 필사 대상이 되어, 양쪽으로도 절대적 주류였다. 다른 두 유형은 아직 자료가 하나씩밖에 없고, 또 개화기에 발간된 것밖에 전해지지 않아서, 이 점에서도 '여지고 변형형'이 주류라고 할 수 있다.

『거경정리표』의 계보를 보면, 다른 계통으로부터 체계상이나 내용상 큰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없으며, 주로 같은 계통 안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계통분할을 거듭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책의 체계상 같은 신경준의 저작에 뿌리가 있는 『산경표』와 한 쌍으로 편집될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산출기로 대표되는 국토 자연 지리관과, 대로로 대표되는 국토 인문지리관을 한 마당에서 대등하게 취급하는 한국인의 국토지리관을 받

영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지리관을 지리지 저작을 통해 합리적으로 체계화한 시조가 바로 신경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일합병을 전후해서, 철도개통 등으로 이미 육상교통체계가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지연이 『대한신지지』를 간행하고, 최남선이 『도리표』를 복간하는 등 『산경표』와 더불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민족정체성의 터전 뭉을 수행했던 것이다.

여기서 지적한 계통성은 어디까지나 필자가 29개 『거경정리표』의 분석을 통해 세운 가설이며, 서론에서 밝혔듯이 향후 연구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 가설을 실증, 정밀화하고, 또 이 논문의 주제인 계통성에 한정되지 않는 『거경정리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하와 같은 과제들이 제기된다.

첫째, 『거경정리표』의 기원과 확산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신경준이 직접적인 시조임은 틀림없지만, 그 스스로가 밝혔듯이 그가 창작한 지리지들은 본인의 연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행연구들의 결정체이다. 그 안에는 전국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언급은 없어도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각 지역마다 교통로에 대한 기술은 많다. 『거경정리표』 내용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부 읍치명칭 등을 실마리로 발생시키는 영조대, 확산시기는 정조대로 추정하였으나, 이를 정치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유지명 전망에 대한 분석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도 비슷한 형식의 도리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내에서 어떤 유형이나 계통발달이 있었는지, 또 조선의 『거경정리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는데,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짚어가야 할 과제이다.

둘째, 본고에서는 『거경정리표』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다음 단계로 관련성이 높은 사료들과의 교차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별도 발표할 예정이지만 휴대용으로 전국 지도와 대로체계가 한 장에 수록된 『도리도표』는 『거경정리표』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분류 및 계통성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 『거경정리표』와 한 짝으로 여겨지는 『산경표』도 광문회본으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계보를 정리하면, 『거경정리표』

의 계보분석에도 보다 자세한 시사를 줄 수 있다. 동시에 작성된 고지도류, 읍지류와의 상호간섭 흔적도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지체계로서의 도리표류에 대한 연구도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는 순수히 『거경정리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같은 책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 『도군상거표』나, 일부에서 책머리에 있는 지도류 등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성립될 것이다.

셋째, 인접학문분야와의 학제적 연구이다. 특히 제3장에서 부분적으로 시도한 것처럼 경유지명의 미세한 차이에서 유형을 도출하려면 지명학, 역사언어학, 서지학, 향토사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이다. 필사자들과 그 전달과정도 가능한 추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지리학자만의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다. 병행해서 이번에는 참조하지 못했지만 전국이나 북한 일본에 흩어진 것으로 추정된 개인소장 사본들을 가능한 수집하여, 분석 모수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주

- 1) 역사학에서 역제를 중심으로 한 옛길 연구동향은 Cho(2002, 41-50)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지금도 경향에는 큰 차이는 없으며, 관제 등의 역참제도 변천, 역의 기능변화, 역민의 지위변화, 역촌사회변화 등이 주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 2) 지리학 분야에서 조선시대 옛길의 자세한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Todoroki(2010, 16-22)를 참조. 특히 Choi(1975, 1990)이 이 분야의 효시이고, 영남대로를 사례로 조선 옛길의 역사지리학 및 문화지리학적 특성에 대해 밝혔으며, 후속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 3) Park(1996), Kim(2001), Todoroki(2002), Ryu(2005) 등은 지리지에 기재된 도로망에 대해 역사지리학적 해석을 가했지만, 역시 『거경정리표』를 주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 4) 『산리고』(규장각 소장)는 표 방식이 아닌 기술식이지만, 내용상 『거경정리표』의 계통을 잇고 있는 것이 분명해서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 5) 예를 들어 9개 대로가 있을 경우 '大路分九(혹은 大路九分)'라고 적었다.
- 6) 사본에 따라 이 칸이 다른 칸과 같은 크기가 되기도 하고, 칸을 놓지 않고 난외에서 처리할 경우도 있다.
- 7) 1902년에 學部가 간행한 『大韓十三道程里表』는 그러한 사례이다.
- 8) 이하 『여지고』로 약칭함
- 9) 양보경의 글에 의하면 1990년에 나온 산경표 영인본 해제에서 『산경표』가 1769년 신경준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단정하고, 이는 장서각에 있는 『여지편람』에 『산경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조가 신경준에게 『여지편람』 감수를 지시한 기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양보경의 지적처럼 이때 『여지편람』이라는 이름으로 간행 예정이던 책은 중국의 『문헌통고』에 빚들어 『동국문헌비고』로 개명한 후 발간된 것이고, 장서각의 『여지편람』은 이름만 같고 승정원일기에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므로, 신경준의 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장서각 『여지편람』 중의 『정리표』에 1769년에 없던 수원화성이 등장하는 것이 결정적 증거이다.
- 10) 제3로(평해로)만은 예외적으로 일반 읍치인 평해가 종점인데, 제3로는 다른 대로에 묶을 수 없는 강원도 각읍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라는 성격이 컸다.
- 11) 문론 공조의 책임하에 도로시설의 규격을 정하고, 관리치침도 밝혔으나, 그것은 물리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통망의 관리체계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다.
- 12) 단 『여재촬요』만은 통영별로와 제주로의 순서가 바뀐다.
- 13) 예외적으로 『해동지방표』(오사카부립도서관본)는 제4로를 부산로가 아닌 '거제로'로 노선명을 적고 있는데, 실제 내용상은 부산로가 본선, 통영로는 분기선이 되어 있다.
- 14) 『도로고』는 『여지고』의 9대로 중 통영로, 통영별로, 충청수영로를 대로가 아닌 분기로나 일로로 표현해서 6대로 체계로 되어 있다. 그의 다른 저서들과 함께 왕명에 의해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저본이 되었다고 생각되기에, 거경정리표의 대로체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15) 여재촬요의 경우 제5로의 종점은 태백산 대신 각화사로 되어 있다. 또 대동지에서는 가장 근방의 읍치인 봉화가 종점이다.
- 16) 조선후기 지방에 있었던 4대 사고 중 적상산은 연락할 대로가 없으며, 오대산과 정족산은 근방에 대로가 지났지만 사고에 관련된 경유지명은 기재되지 않아서, 사고를 종점이나 경유지로 한 대로는 태백산로뿐이다.
- 17) 정확하게는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서는 충청수영을 종점으로 하여, 대부분 거경정리표에서는 거기서 조금 연장되어 비인읍까지로 되어 있다.
- 18) 여재촬요는 10권짜리 필사본과 5권짜리 필사본, 1권짜리 목판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동국팔도정리표는 필사본에만 실려 있다.
- 19) 직로는 같은 구간을 연결하는 도 하나의 길이라는 뜻으로 별로나 일로와 비슷하지만, 보다 짧은 경로를 뜻한다(Ryu,

- 1999)
- 20) 동여기략의 국립중앙도서관본(2권 구성, 규장각본은 4권)에는 거경정리표는 없다.
- 21) 도로고와 대동지지 정리고도 마찬가지로인데, 桐華院이라는 이자를 사용한다. 이런 부분으로 미를 때, 대동지지 정리고도 여재활요 동국팔도도리 Table처럼 도로고의 직접적인 영향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 22) 약자 사용으로 인한 차이는 포함하지 않았다.
- 23) 이 양자는 제3로의 경우 달수역이 빠졌다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지명들은 우계의 사용한자에서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동일하다. 또 이 도로고는 광문회를 조직한 최남선의 장서를 이관한 고려대 육당문고(Table 1의 19번)소장본임으로, 광문회본 해제에서 언급된 '인용한 장서'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육당문고 소장 『기봉방역고』와 정가당문고 소장 『노표』도 가까운 핏줄에 속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e, W.-S., 1999, New geographical thoughts on East Asian region in late 18th century, *Hankook Hakbo*, 25(1), 92-125 (in Korean).
- Cho, B.-R., 2002, *Korean History of Traditional Station System*, Horse Museum, Gwacheon (조병로, 2002, 한국역제사, 마사박물관).
- Choi, Y.-J., 1975, Research on Yeongnam road: Case of Seoul to Sangju, *Geography*, 11, 53-82 (in Korean).
- Choi, Y.-J., 1990, *Yeongnamdaero*,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최영준, 1990, 영남대로-한국 古道路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년에 증보판 간행).
- Choi, Y.-J., 1992, Traditions and background for progress of geography in late Joseon era,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4, 53-75 (in Korean).
- Huh, W.-K. and Todoroki, Hiroshi, 2007, *A Geography of Inland Transport in the Gyeongsangdo Region of Korea, From the Late Nineteenth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허우궁·도도로키히로시, 2007, 개항기 전후 경상도의 육상교통, 서울대학교출판부).
- Kim, J.-H., 2001, Network of marketplaces and road transportation in the Han river basin in 'Dongguk Munheonbigyo,' *Review of Economic History*, 30, 3-45 (in Korean).
- Ko, D.-H., 2003, Yeoam Sin Gyongjun's study and thought, *Local History and Culture*, 6(2), 179-216 (in Korean).
- Korea expressway corp., 1984, *Road History of Korea* (한국도로공사, 1984, 한국도로사).
- Lee, J.-B., 2003, Sin Gyongjun: Realist who discovered concept of national land and road, *Critical Review of History*, 62, 323-339 (in Korean).
- Park, G.-Y., 2007, Historical background on editing 'Dongguk Munheonbigyo', *Jindan Hakbo*, 104, 211-224 (in Korean).
- Park, I.-H., 1996, *A Research on Historical Geography in Late Joseon Era*, Doctoral dissertation, Academy of Korean Study.
- Ryu, D.-H., 2003, *A Study on Geographical Knowledge of Sin Gyeongjun*, Master dissertation, Gwandong University.
- Ryu, M.-H., 2005, *A Study on Yeoam Sin Gyeongjun's 'Dorogo': 6 Main routes*, Master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 Ryu, S.-H., 1999, Yeokro and Jukro in late Joseon era, *Historical Education*, 70, 1-31 (in Korean).
- Torodoki, H., 2002, A study on restoration of the Gwangdong Daero in 'Daedong Topography,'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4(1), 85-108 (in Korean).
- Todoroki, H., 2010, Research on the land transportation in Joseon era from the viewpoint of historical geography, *Historical review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72, 1-24 (in Japanese).
- Yang, B.-K., 1992, Sin Gyeongjun's 'Sansugo' and 'Sangyeongpyo': Systematic comprehension of national geography, *Journal of Land Development*, 3(3), 135-145 (in Korean).
- Yang, B.-K., 1999, Geographical thought of Yeoam Sin Gyeongjun, *Planning and Policy*, 211, 36-43 (in Korean).
- 道路考, 申景濬(1770)

도도로키 히로시(轟博志)

東國文獻備考, 英祖編, 崇政殿校正(1770)
林園經濟志, 徐有築(1824)
東輿圖志, 金正浩(1834)
大東地志, 金正浩(1860)
淵泉集 洪奭周(1864)
輿載撮要, 吳竑默(1893)
大韓新地誌, 張志淵(1907)
增補文獻備考, 李太王編, 弘文館校正(1908)
道里表, 朝鮮光文會(1912)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距京程里表

교신: 轟博志, 874-8577, 日本大分県別府市十文字原1-1,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アジア太平洋学科(이메일: hstod@hanmail.net, 전화: 81-90-1054-9111)

Correspondence: Torodoki Hirosh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sia Pacific Studies,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 1-1, Jumonjibaru, Beppu, Oita, 874-8577, Japan (e-mail: hstod@hanmail.net, phone: +81-977-78-1111).

최초투고일 2010. 8. 19

수정일 2010. 9. 17

최종접수일 2010. 9. 18